

# 지방금융지주, 지역 경기 호전에 2분기 실적도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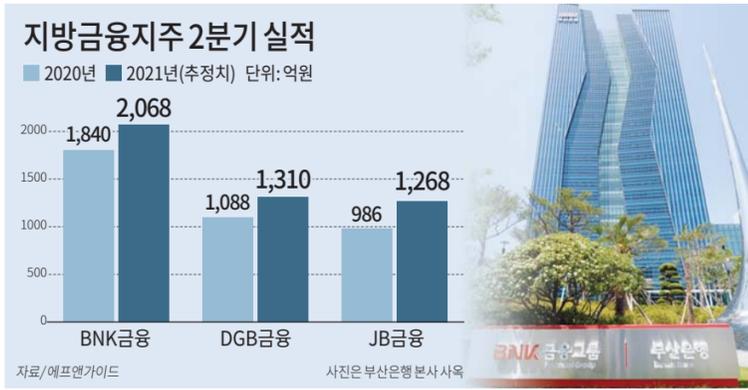
지방금융 2분기 순이익 4646억  
은행 부문 양호한 이익 성장 영향  
순이자 마진 상승... 실적 개선 추세

3대 지방금융지주가 침체됐던 지역 경기 회복세에 더해 순이자마진(NIM)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는 추세다

14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의 총 순이익은 46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14억원 대비 18.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선 지난 1분기에도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2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BNK금융지



주가 1840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12.39%(228억원) ▲DGB금융지주는 1088억원에서 1310억원으로 20.40%(222억원) ▲JB금융지주 986억원에서 1268억원으로 28.60%(282억원) 증가 등 3개 금융지주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 만형인 BNK금융은 금융지주 설립 이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은 물론 분기 순이익 2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는 은행 부문 실적의 양호한 이익 성장과 더불어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 호조 등이 꼽

힌다. 더불어 최근 지역 제조업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호조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 대출 증가율은 연초 대비 8~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증가율 관리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규제,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해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GB금융 역시 은행 계열사의 순이자마진 상승과 대출증가율 견조세,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선방이 더해지면서 순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2분기 중 순이자마진(NIM)이 3bp(1bp=0.01%포인트) 상승과 더불어 대출 증가율도 3%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마진상승으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라며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과 수익성 제고효과로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자원배분 등 효율적 자본관리 정책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B금융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금융지주 중 순이익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2분기 NIM이 전분기대비 8bp 가장 크게 올라 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은행 수수료이익과 자회사 캐피탈 실적은 양호하겠지만 기저효과와 일회성 유가증권 이익 축소로 비이자이익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KB국민은행, 메타버스 기반 'KB금융타운' 오픈

아바타·가상 영업점 활용  
금융·비즈니스 등 3개 공간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Metaverse) 시장 성장에 발맞춰 미래 고객인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베드를 금융과 연계하는 실험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올해는 아바타와 가상 영업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시도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철학인 넘버원 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직원들의 메타버스 활용과 경험확산을 위해 게더(Gather) 플랫폼을 활용한 KB금융타운을 지난 1일 오픈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다. KB금융타운은 ▲금융·비즈니스 ▲재택센터 ▲놀이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금융·비즈니스는 영업점, 홍보·채용 상담부스, 대강당, 소셜공간으로 구성했다. 재택센터는 재택 근무자와 사

무실 근무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꾸몄으며 놀이공간에는 공원과 미로찾기 게임 등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지난 8일에는 테크그룹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와 외부 업체와의 기술미팅 등을 KB금융타운에서 개최했다. 앞으로는 경영진 회의나 타운홀 미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금융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로블록스(ROBLOX) 플랫폼이나 가상 현실기기(HMD)를 활용한 가상금융 체험관을 실험할 예정이며, 아바타와 AI를 활용해 메타버스 영업점을 구축해 고객상담·이체·상품 가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 신한카드, 업계 최초 CB 예비허가 획득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예비허가

신한카드가 금융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사업자 CB 예비허가를 획득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CB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이번 결정이 분허가 심사에서 확정되면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게 된다.

신한카드는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1차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해 10월 '마이크레딧(MyCredit)'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론칭하고 인터넷은행 등 외부 금융사에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반을 다져왔다.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및 가맹점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 이외에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로 수집해나가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신용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나가는 데 사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카드 고유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서비스 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전용 금융상품 외에도 대출 중개, 경영진단 등 카드 비즈니스와 접목한 특화서비스 개발과 연계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번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CB 예비허가 획득은 카드업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금융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카드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차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데이터 금융을 선도하고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소완 수습기자 think@

## 우리은행,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선제적 예방 활동

우리은행은 제10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사이버 위협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과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금융권 최초로 ISO27701과 ISMS-P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은행장,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주요 임원진과 유관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킹사고

에 대비함은 물론 고객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모의훈련을 금융권 최초로 CEO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시켜 전직원 보안인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 행장은 "금융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정보보호 생활화로 고객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훈련 외에도 7월 한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기념하여 ▲전직원 정보보호교육 실시 ▲임직원 참여 정보보호 이벤트 ▲사이버보안 위협 사례 동영상 게시 등 전직원의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 NH농협생명 모바일 보험계약대출 확대

NH농협생명이 보험계약대출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PC 홈페이지, 모바일창구와 더불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보험계약대출은 간편비밀번호(PIN) 인증방식을 이용해 본인인증 편의성을 높였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앱 설치, 가입 등의 절차도 생략한다. 본인명의 핸드폰 혹은 카카오톡 인증으로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설정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모바일 홈페이지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간편하게 보험계약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영석 기자

## 'OK파킹통장' 내달까지 최대 연 2% 금리

OK저축銀, 공모주 청약 일정 대비

OK저축은행은 대형 공모주 청약 일정에 발맞춰 자행요구불예금(입출금예금)인 'OK파킹대박통장'의 금리를 다음달 31일까지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 공모주 투자 대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는 물론,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정기예금 예치대기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OK파킹대박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8%다. 여기에 개설 후 오픈뱅킹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등록 다음 날부터 0.2%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2%를 받을 수 있다. 단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우대금리 포함 시 0.3%)가 적용된다.

이번 특관 금리는 기존에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음달 31일까지 유지된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준비한 시기와 관련해 OK파킹대박통장의 금리 인상을 전격 인상했다"며 "해당 상품을 통해 공모주 청약 2영업일 후 환불되는 대기자금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소완 수습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구독

